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약칭 : 농어업특위)

보도자료

- 제 공 일 : 2005. 7. 14
- 제 공 자 : 농어업특위 사무국
- 정책1팀장 : 박 병 흥
- 전 화 : (02) 3471-8761~4
- 홈페이지 : <http://www.pcafr.go.kr>

이 자료는 2005년 7월 14일 09:3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에 盡力키로

-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착을 돕는 ‘종합서비스’ 실행
- 4대 중점과제 추진 등 ‘제2기 농어업특위’ 운영계획 확정

7. 14(木), ‘제2기 농어업특위 출범’ 대통령 보고회

〈 보도요지 〉

◇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이주 촉진을 위한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 보고

- 귀농정보,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터넷 종합정보망 구축 및 전담 조직 운영
-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유형별로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
-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개선
-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 4대 중점과제 추진 등 제2기 농어업특위 운영계획 확정

-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와 희망 제시
- 농어업·농어촌대책 점검·평가, 농어정책 시스템 경쟁력 강화
- 이해계층·집단간 사전 합의도출, 사회적 통합 구현
- 농어업분야 공동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참여 농어정 구현

□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7.14일(木) 청와대에서 '제2기 농어업특위 출범' 대통령 보고회를 가졌다.

- 보고회에서 제2기 농어업특위는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계층·집단간 합의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착을 돕는 '종합서비스' 실행

□ 이날 농어업특위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를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국민소득 향상·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와서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 결과 40대 이상 도시주민 58%가 은퇴후 농어촌 정주 희망

‘농어촌 정주지원 토탈시스템’ 구축

- 우선, 농어촌체험관광이나 농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농지은행업무와 도농교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맡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에 기초한 도농교류·정주지원기구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종합정보망을 구축, 이미 서비스중인 농어촌체험관광 안내를 포함하여 7.14일부터 농지정보 제공, 금년말까지는 주택·귀농정보 등 전체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종합 서비스할 계획이다.

※ 전담조직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정보상담실(대표전화 1577-1417)
홈페이지 주소 : www.nongchon.or.kr

전원주거단지, 체재형주말농원 등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

- 아울러, 도시민이 농어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원생활 교육과 영농훈련을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이주 유형별로 정주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유형별로는 ①농어촌관광형으로 농어촌체험마을을 올해말까지 246개소, ②주말전원생활형으로 체재형주말농원을 2개소, ③재촌전원생활형으로 맞춤형전원주거단지를 26개소, ④노후생활형으로 농어촌노인복합단지를 4개소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말농장에 주택신축시 농지조성비 감면 등 제도 개선

-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도시민 1가구 1농장가꾸기 운동' 등 사회적 참여 분위기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 농업진흥지역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연면적 33㎡이하) 신축시 농지 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폐교·국유림 활용시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정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 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시민 1가구 1농장 가꾸기 운동' 추진 및 '농산어촌 일자리창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한편,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초생활개선, 농어촌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 이날 보고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은 농어업특위내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구체화하고, 각 부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4대 중점과제 추진 등 ‘제2기 농어업특위’ 운영계획 확정

- 또 이날 농어업특위는 4대 중점추진과제를 정하는 등 ‘제2기 농어업특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첫째,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농업·농촌 기본법에 규정된 식량자급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 DDA협상/FTA에 따른 국가별·품목별 영향분석 및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국내대책 제시 및 협상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 통일대비 남북 농어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민간단체·기업의 역할 분담 및 종합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 둘째, 농어업·농어촌대책을 점검·평가하여 농어정 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농어정 점검·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점검·평가하며,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셋째, 이해계층·집단간 사전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 관계부처, 농어업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업무협의회」를 신설, 수시로 현안문제를 사전 조율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 농어업인의 자구노력 강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농어업분야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참여 농어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1社1村운동’의 성과를 발전,
도시와 농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

□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운동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 농협은 ‘1사1촌운동’ 추진 1년여 만에 기업·관공서 등과 마을간 5,000여쌍의 자매결연을 이뤘으며, 회원모집 4개월여 만에 136만명의 농촌사랑회원이 참여하는 등 범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농교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기업체는 물론 학교와 도시 부녀회 등 많은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 정주 유형별 사례

유형별	마을명	가구/인구 (‘02→’04)	마을특성 및 유형별 사례
① 농 어 촌 체험관광형	교촌마을 (경북 의성)	<방문객수> (‘03) 1,700명 →(‘04) 3,400	○ 전담 사무장 고용, 100여개 체험프로그램 개발, - ’04년 3,400명 방문, 270백만원 매출 ○ 마을부녀회 중심, 농촌체험마을 사업 활발히 추진
	장호리 (강원 삼척)	<방문객수> (‘03) 3,000명 →(‘04) 7,000	○ ’03년 생태 및 선상체험장 등 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 - ’04년 7,000명 방문, 381백만원 매출
② 주말전원 생활형	운정리 · 운중리 (전북 임실)	92/213 → 108/227	○ 옥정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 인근 전주와 접근용이 ○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전원 주택 신축 확대 - ’01년 7세대, ’04년 2세대 등 9세대
③ 취 업 형	■ 귀농 바리실마을 (충남 금산)	67/198 → 72/217	○ 경관이 좋은 신촌마을로서 대전과 인접, 사과 재배로 타 마을에 비해 소득이 높아 귀농 증가
	■ 귀어 미라리 (전남 완도)	104/301 → 108/300	○ 김양식에서 전복양식으로 대체개발 성공, 호당 평균 60백만원 수준으로 대도시에서 전복양식 목적 이주 증가
	■ 산업단지 입주 광혜원리 (충북 진천)	2,272/6,548 → 2,730/7,245	○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 증가 - 수도권 접근 용이(진천C) 등으로 산업단지 이주 촉진
	■ 농촌관광 등 황태마을 (강원 인제)	153/404 → 185/491	○ 내설악국립공원, 동해안 등으로 펜션업 증가 ○ 황태생산 · 유통과 관련한 종사 인원 증가

유형별	마을명	가구/인구 (‘02→’04)	마을특성 및 유형별 사례
④ 노 후 생 활 형	홍원리 (충남 홍성)	은퇴농장 17 가구 18명 입주	○ 직거래 사업을 하던 개인이 ‘96년부터 은퇴농장 운영 - 1만평의 농지에 농장이 딸린 주택 24호 신축 임대 ○ 유기농채소 공동재배, 1인당 월 50만원 수입
	독일마을 (경남 남해)	(‘02)5/10→ (‘05)8/16	○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나가 일하던 교포 정착 마을 - 지자체에서 부지, 도로, 상·하수도 등 SOC 지원
⑤ 도 시 출퇴근형	쌍테리 (전남 담양)	70/213 → 78/220	○ 대학교수가 전원생활을 위해 전문직 종사 친구들과 함께 이주, 광주 출퇴근
	평당마을 (경남 하동)	322/977 → 399/1,218	○ 경관이 좋고 교통 편리, 인근에 광양제철, 하동화력 발전소 등이 있어 출퇴근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
⑥ 기 타 형	안솔기마을 (경남 산청)	14/42 → 30/92	○ ‘99년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육부 최초 인가 - 최초 학생 20여명 모집이후 현재 100명으로 증가, - 교사가족 14세대 44명 이주, ‘03년 생태마을 조성 도시민 15세대 53명 이주
	문충마을(중전) (경기 화성)	122/322→ 124/306	○ ‘01년 폐교활용, 문화시설인 「창문아트센터」 개소 - 예술가(10명)작업실, 계절별 예술제 개최 - 도시출신 예술가와 마을주민이 함께 농촌체험사업 실시